

# 로마의 건국 신화:

This is the summary of the cartoon about the beginning of Rome shown in class.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늘엔 많은 신이 있었고 주피터란 가장 높은 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사는데, 사람과 다른 것은,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마르스'라는 군사와 전쟁을 맡은 신이 있었는데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 신이었다.

어느 날 마르스가 산책을 나갔다가, '레아 실비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서 반해 버렸다. 마르스가 실비아를 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신의 세상에서는 인간과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피터로부터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한 마르스는 쌍둥이 형제를 테베레 강에 버렸다. 강을 따라 흘러내려간 쌍둥이 형제를 한 늑대가 발견하여 키우게 되었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이 쌍둥이는 뒤에 로마를 세운 시조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한 복판에 있는 '카피톨' 박물관에 가면 늑대의 젖을 먹는 아이들의 청동 동상을 볼 수 있다.

로마가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약 2천7백여 년 전으로



기원전 753년경이라고 한다.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으로 된 땅인데,



이 언덕들의 하나에 조그만  
마을이 세워졌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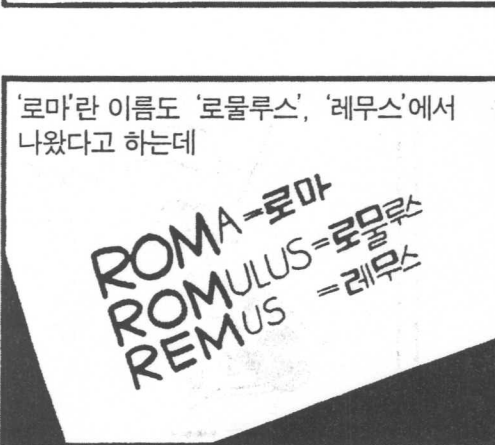
이가 곧 로마의 탄생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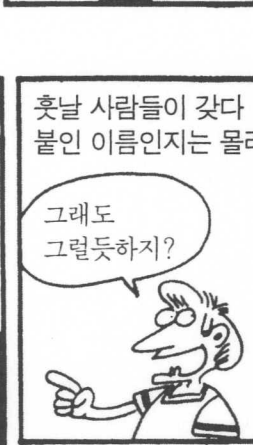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그 나라,  
민족을 세운 전설이 있게 마련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단군 할아버지가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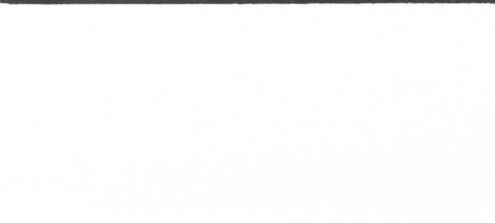
로마를 세운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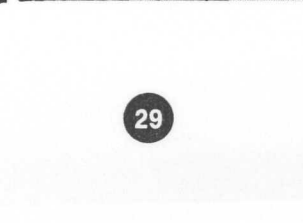
'로물루스'와 '레무스'란 쌍둥이 형제래.



'로마'란 이름도 '로물루스', '레무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훗날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인지는 몰라도



로마가 세워진 데엔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늘엔 많은 신이 있었고



유피테르(주피터)란 가장 높은 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사는데,



사람과 다른 것은,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지.



이 가운데 '마르스'란 신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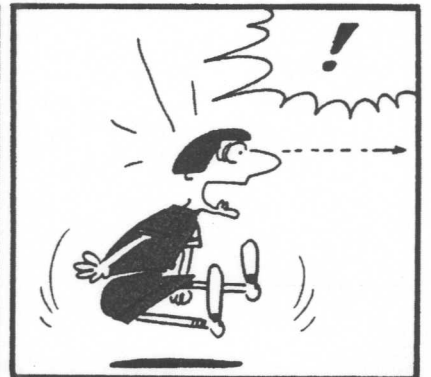
마르스는 군사와 전쟁을 맡은 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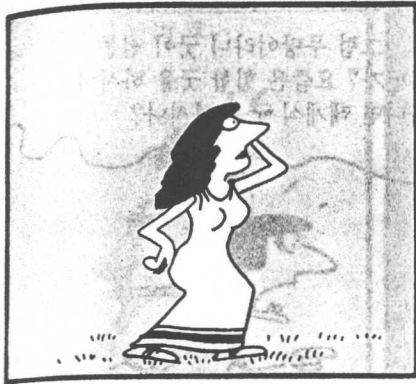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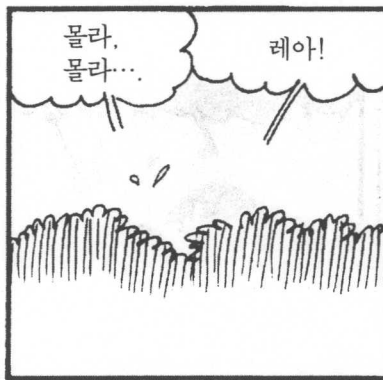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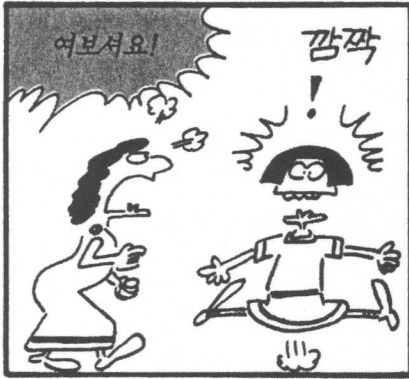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 신이었어.



어느 날 마르스가 산책을 나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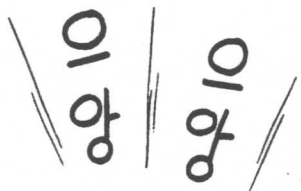








그래서 얼마 후 레아 실비아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도 골치 아픈데 한꺼번에  
둘씩이나 스테레오로...



이들 딸 구별할라고  
하나만 잘 기르자  
몰라?

내가 둘 낳고  
싫어서 낳은 줄  
알아?



애고... 망했다!  
이름 어찌면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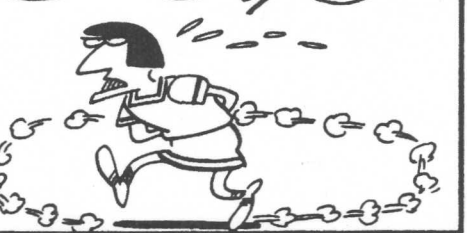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끝장이다!



마누라에게 집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얼굴 들고 밖에  
나갈 수 없어...



신이 인간과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떳떳지 못한 관계로...



유포테르 어르신네가  
아시면 당장 사정 위원회에  
돌려 날 파면시키실 게고.



집사람에게 이혼당하고, 어쩌면  
아예 신의 자격조차 박탈당할지도  
몰라...



...방법은 오직 하나 뿐...







이래서 쌍둥이 형제는 늑대 젓을 먹고  
자라났는데,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랑  
비슷하지?

이들이 곧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로

뒤에 로마를 세운 시조가 된다.

그래서 '늑대 젓을 먹는 쌍둥이 형제'는  
로마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신 아버지,  
무당 엄마,  
늑대 유모를 가진  
쌍둥이셨다!

잘났습니다!

지금도 로마 한복판에 있는  
'카피톨' 박물관에

청동 동상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지.

역시 신과 인간의 자식인 예수가  
중심이 되는 크리스트 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우연만일까?

어느 민족이나 그들의 시조를  
뛰어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전설을 만들어 내게 마련이야.

우리의 시조는  
화끈하게 남과  
다르다!

우린 그런  
분의 자손  
이라고...

가령 고조선 시조 단군이라든가

단군은 하느님과 곰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또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커다란  
알에서 나오셨다!

그 알은  
황금으로 온 경주가  
번쩍 거렸더라!

고구려의 시조 동명 성왕은  
눈을 가리고 십 리 밖의 나뭇잎  
한가운데를 꿰뚫을 정도로  
활쏘기에도 도가 통하셨다!

이런 것은 요즘에 와서도 비슷해.

우리 나라 수상은 초등 학교  
때부터 줄반장이셨고 만능  
스포츠맨이시며 음악,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출중하시고.